

BRIDGE

<http://www.dropin.or.kr>

架橋

2019. 7월 VOL.13



 서울특별시립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13)
Tel. 02)363-9199, 9195 Fax. 02)363-9198

Contents

- 03 | 스위치비전스쿨(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하자)
- 04 | 취업 성공 사례 1·2·3
- 08 | 코레일 청소사업단을 소개합니다
- 09 | 이동목욕차량사업을 소개합니다
- 10 | 취업성공열린학교
- 11 | 취업성공열린학교 참여자 성공사례
- 12 | 2019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 보고서
- 13 | 희망원룸 임대주택 입주자 성공수기
- 14 | 희망원룸 행복하우스 입주자 생활수기

발행처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우 03741)
T. 02)363_9199, 9195
F. 02)363_9198

발행인

이문재

편집인

김남영

발행일

2019년 7월

디자인 제작

여함



스위치비전스쿨 (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하자)



희망원룸

1. 스위치 비전스쿨 프로그램은?

- 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하자는 의미로 스위치를 온(On)시킬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식변화, 동기부여, 집단상담식 심화·회복 프로그램으로 희망원룸 입주인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내적 임파워먼트 강자
- 참여인원 : 희망원룸 입주인 - 교육시기 : 년 2 회

2. 프로그램 진행

오프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차 마음 문을 여는 공감대 형성 시간 - 매회 타이틀 주제 영상으로 오픈 - 프로그램 연혁 및 스텝소개
프로그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질문으로 입주자의 수준과 분위기를 파악하여 진행과 강의에 참고 한다 - 선행 질문
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예식)시간을 갖게 한다 - 매듭짓기 - 눈을 감고 조용히 하루 시작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포스터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편성을 통한 소그룹 활동 예비 단계를 만든다 - 테이블 별로 자율적으로 조장을 선출하게 하여 직접 참여 유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 포스터 만들고 발표하기 - 스스로 교육 분위기와 수준을 올리게 한다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의 하프타임(동기부여·의식변화), 자아 정체성(자아·타인과의 관계), 문화체험, 가치관, 건강한 가정, 강점교육, 꿈과비전(21c 인재상), 준법교육 강의 - 강의 주제별 PPT, 영상, 음향기기를 활용한 강의 - 강의 중 워크샵을 통한 쌍방향 교육
과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쓰기, 편지쓰기(가족·용서), 결심문, 비전선언문, 소감문 쓰기 - 매회 한가지씩 과제물을 내어주어 지속적 교육효과 유지하고, 글로써 감정표현, 조별 소그룹 발표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법을 훈련 하게 한다.
소감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 과제물을 내어주고 소그룹으로 발표하게하고 전체발표를 통하여 다이나믹한 감정의 역동을 경험하게 한다. - 교육장소가 참여한 참석자간에 신뢰, 비밀, 존중 할 수 있는 안전지대임을 조성하게 하고 교육수준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실천의 장소가 되게 한다.





취업 성공 사례 1

JOB

취업지원센터



20년간 서울 시내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해오며 남부럽지 않은 유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셨던 송**님은 갑작스러운 사업의 악화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져 서대문사랑방에 입소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겪어보지 못한 고단한 생활을 하게 되신 송**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재기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직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빠른 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던 중, 저희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길로 한걸음에 달려와 방문해주셨다고 합니다. 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의료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등을 연계 받으시며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셨고,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예전에 사업하셨던 일과 같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공사하는 곳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에는 자립에도 성공하셨습니다.

들지 않으시다며,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저희 센터에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연거푸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취업지원과 함께 주거지원 연계가 힘든 생활에 여유를 만들어 주어 지금과 같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을 하게 된 지금은 시집 간 따님에게 그 동안 부담이 될까 걱정하여 연락도 못하고 지내셨는데, 연락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으며 3년 정도 열심히 근무하여 저축한 돈으로 귀농하고 싶다고도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기의 의지가 있는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담을 마치며 운동을 따로 안해도 일이 곧 운동이라며 씩씩하게 웃어 보이시며 힘차고 경쾌한 걸음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묻자 지난 20년간 해왔던 일이기에 힘





취업 성공 사례 2

JOB

취업지원센터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던 정**님은, 이유는 밝히기 어려우나 신념에 의한 일로 6개월 정도 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갈 곳 없던 정**님에게 지인이 저희 시설을 소개시켜주었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안 해보셨냐는 질문에, 16년 전에 아내분과는 헤어지셨고 아들과 딸이 사회인이 된 후에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자립하고자 하셨던 정**님은 센터를 통해 틀니지원 및 직업 상담과 주거지원을 받으시며 취업을 하고자 오랜 기간 노력하셨습니다.

그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것일까요. 정**님은 현재 본인이 오래 전에 하셨던 닥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보면 허리를 구부리고 펴지 못한 상태에서 일해야 해서, 매우 아프고 먼지가 많아서 힘들지

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님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센터에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은, 앞으로 새로운 분과 만나 가정을 이뤄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또 가능하다면 정**님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을 위해 공익사업에 참여하여 일해보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서는 정**님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더 가볍고 힘차 보였습니다.





취업 성공 사례 3



1959년 10월 가을, 김**님이 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김**님은 꿈 많은 청년이 된 뒤에도 미래를 그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 기억을 잃어버리고 마는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병은 밝은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하던 김**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병으로 인해 일도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바람에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억을 또 잃어버렸던 어느 날 넘어지며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부러진 이를 다른 사람에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대인기피증까지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점점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되어갈 때쯤 친형이 연락이 끊긴 김**님이 걱정되어 찾으러 오셨으나, 처음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쓰러지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병 때문에 말입니다. 나중에 형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동생이 걱정되어 같이 가자고 하는 형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따르지 않고 다시 헤어져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현의 집, 다시서기, 서울역 노숙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지냈고, 통장을 대리로 만들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도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세군가재울셈터에 입소하시게 되었고, 그 곳을 통해 구세군 새희망고용지원센터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담만 받아보자고 생각하여 방문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취업을 돕고자 하는 저희 모습에 꼭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욱 생기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알선을 통해 따스한채움터에서 근무하시게 되었고, 최근에는 3월 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을 모두 마치고 보안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만족하셨는지 묻자 가끔 무례한 사람도 있어 정신적으로 피곤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모든 일이 끝나고 정리 후 돌아오는 보람이 매우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바둑을 두기도 하며 도움이 되는 여가생활 가지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두통검사를 받으려 예약하는 등 건강에 관한 것도 잊지 않고 챙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을 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매입임대도 가능해지면 그 동안 연락 못한 가족과도 연락을 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또 앞으로는 힘든 사람들에 베풀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그 때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원장님께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며 멧쩍은 미소를 지으며 센터를 나서셨습니다. 현재도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게재해달라고 하시며 편지를 쓰셔서 전달 해주셨습니다. 7페이지에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내오신 편지

김**님

쉼터에 들어와 있는지도 9개월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경비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려고 몇 군데 다녀봤는데 취직을 못하고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새희망고용지원센터에서 소개를 해준 서울역에 있는 따스한채움터에 취직을 했습니다. 벌써 이곳에서 근무한지도 5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요즘같이 보람있게 살아본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매일 말일이면 월급을 저축하고 쉼터에 보관을 하니,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으다보면 조그마한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 싶어 출근을 게을리 할 수 없고 더욱 열심히 하고자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매일 자신에게 다짐하고는 합니다. 다만 걱정이 있다면 내 병으로 인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쉼터 직원들에게는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일터에는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채용이 안 될 것만 같아,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직장에서 잘 생활해왔기에 걱정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늘 저를 도와주는 새희망고용지원센터와 예배 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나를 기억해주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고마운 사람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현재 힘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것은 죄가 아니니 부끄러워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



코레일 청소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동대문구와 코레일, 그리고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의 자립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희망일자리사업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에게 청량리역의 청소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여 거주지까지 구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였던 참여자들은 수급을 신청하시거나 민간일자리로 연계하여 탈노숙의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이에 자활의지가 강한 노숙인의 건강한 자립 지원을 위해 2기 희망일자리 사업단이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범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단은 코레일이 일자리와 사업비를 제공하고,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상담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을 맡아 청량리역 광장 및 주변의 환경미화활동, 제설작업, 노숙인 보호 및 계도활동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참여자는 참여 기간 동안 주거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생활용품 및 의료지원, 취업기관과의 연계등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코레일수도권동부본부

- 일자리제공 : 역 주변환경정비, 제설작업
- 사업비지원 : 인건비, 피복, 청소용품등
- 작업도구보관 및 휴게공간제공

브릿지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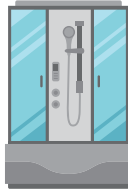
- 주거 및 생활용품지원
- 취업상담, 대상자신청
- 직업재활프로그램 지원

동대문구

- 대상자추천
- 근로자관리



이동목욕차량사업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으로 여러 번의 심사와 시민투표를 통하여 거리노숙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이동목욕차량사업을 2018년부터 지원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2.5톤 차량을 구입하여 목욕설비시설을 설치, 개조하여 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가입니다. 시설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기피하거나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노숙인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과 주거취약거주가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목욕 이후 새로 갈아입을 속옷과 양말, 의류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각역 영풍문고 앞에 매주 화요일 20시~22시, 청량리역 매주 목요일 14시~16시에 차량을 이동하여 목욕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용하시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욕차량의 내부는 2인이 서로 등지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과 전기시설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약 1,000리터의 목욕물이 탑재되어 하루에 20여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냉·온수 샤워시스템에 의한 목욕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의류지원, 상담 연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열린학교



취업성공 열린학교란?

취약계층의 취업의지를 제고시키고 자기 이해와 강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등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구성으로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하고 교육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새로운 출발 : 삶에 대한 동기부여로 취업 마인드 고취
- 긍정심리 강점 찾기 : 현재의 나에 대한 인식과 내가 잘하는 강점 확인
- 맞춤 직업탐색 : 나의 강점과 유사직업 소개
- 취업준비 : 면접질문, 인터뷰 전략(태도, 이미지, 복장 등)



취업성공열린학교 참여자 성공사례



처음 김선생님을 만난 날은 2017년 10월 중순 두 번째 취업훈련프로그램인 취업성공 열린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노숙인 알코올 중독쉼터에 입소하여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매일 교육이 시작하기 한참전인 시간에 오셔서 각듯이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매우 호감이 가는 인상으로 성실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들간의 교육을 성실히 마치고 참여자의 특전으로 자활프로그램(자격증취득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체 공지를 하였던니 바로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제출하셨다.

운전면허 학원 등록 신청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동행하는 중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인생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각듯이 인사만 하시던 선생님이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에 감사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자영업을 해왔었다고 한다. 2008년경 경제적으로 다시 어려워진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몇 년을 버티다가 그 당시 케이터링 사업을 하던 선생님은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고 그로 인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솔로 나날을 지내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었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폭언과 과도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괴롭혔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아내와 아들들에 의해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보호자동의 입원)을 당하게 되었다. 수개월간의 정신 병원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퇴원하였으나 자신을 '강제입원'시킨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극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가족들에게 돌아 갈 수 없었고,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취업성공 열린학교를 통하여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 선생님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취득 후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셨던 선생님은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하셨고 지금은 경비보안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신다. 그사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격려하는 사업인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으시고 장기로 근무하셔서 장기지원금까지 받으시며 성실히 저축하신 선생님은 그동안의 시설생활을 마무리 지으시고 올해 초 매입임대주택으로 독립을 하셨다.

이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지낼 생각에 이것저것 살림을 장만하시며 선생님은 아이처럼 밝아 보이셨다. 앞으로는 안정된 생활로 평범한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선생님을 응원해본다.

2019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 보고서



2019년 5월 13일(월) 14:00~17:00 서울광장에서 노숙인·쪽방주민에게 자활·자립계기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고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제 4회 2019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이문재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장님의 사회로,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님과 배명희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님, 그리고 기업의 대표님들과 인사담당자, 시설장님, 시설종사자가 참석해주셨습니다.

현장에는 40개 기업이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현장면접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40개 기업은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하여 입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프로그램관 민간기관 및 노숙인 시설 24개소가 참여하여 박람회를 더 빛내주었습니다.

352명이 면접을(온라인포함) 진행하여 91명이 1차 합격하였으며, 프로그램관에는 1,809명이 증명사진촬영, 이·미용서비스, 신용회복, 법률, 심리, 정신건강상담, 다육이 체험, 리사이클링, 비누만들기 등을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6월 현재까지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에게 대상자를 연계하고 있으며, 최종 취업한 인원은 16명이고,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9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는 조선일보, 국민일보, SBS, 연합뉴스 외 42건의 언론 및 인터넷에 매체보도가 되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취약계층 구직자와 구인 기업과 만남의 장 마련과 노숙인의 근로능력 미약의 사회적 편견을 깬 인식개선 홍보효과, 다양한 분야의 지원으로 노숙인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2020년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원룸 임대주택 입주자 성공수기



바람은 불지만 날씨가 좋아 오랜만에 뒷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등산로 입구가 집에서 가까우니 앞으로는 자주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오면 건강에도 좋지만 꼭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 건강을 위해서 몸 관리 하시는 것을 보면 100세 시대가 다가온 것을 느끼고 운동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본인한테 좋다는 것을 왜 미처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길을 걸을 동안에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좋은 뜻을 새기면서 걷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동네 뒷산에 운동시설도 참 잘되어 있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이리 좋은 세상에 태어난 나는 불행일까 행운일까.

노숙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오래되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숙 생활을 창피함과 부끄러움도 없이 지냈고 술로 인해 몸도 많이 망가지고 무기력한 생활 속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2013년 그해는 이리저리 되는 일도 없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던 중 친구를 통해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희망원룸을 알게 되어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방을 가질 수 있고 헛터보다 큰 간섭도 없고 생활하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같이 입주한 입주인들을 알게 되어 식사도 같이하고 서로 일자리 공유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여 약간씩 돈을 걷어 고기파티를 하고, 음식 재료가 후원으로 들어오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요리를 해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작은 마음이지만 서로서로를 이해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좋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실수나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때와 무너질 위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모든 간사님들의 배려와 깊은 이해심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원룸에서 생활하면서 나쁜 추억들보다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성장하고 머릿속에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그곳 생활이 다 좋게 추억됩니다. 희망원룸에 정도 많이 들었고, 웬지 모르게 두루두루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숙생활 - 희망원룸 - 임대주택까지 갈수 있었던 것은 모든 간사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마음 속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고마운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희망원룸의 모든 간사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원룸 행복하우스 입주자 생활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하우스에 살고 있는 A라고 합니다. '탈 노숙 지원주택 행복하우스 입주민들과 함께하는 2017 길리언 토크콘서트' 이후로 두 번째 기고 글입니다. 빈약한 어휘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글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우스가 주는 주거안정에 앞서 사람에 대한 글을 다음과 같이 써보고자 합니다.

행복하우스는 주거입지조건이 매우 훌륭합니다. 시내 중심가, 편리한 교통과 주변편의시설, 풀 옵션 원룸. 이정도면 대략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곳을 2020년 상반기까지 별 다른 보증금 없이 13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러나 이런 집을 공급해주어도 정신질환, 알코올홀릭, 불건강, 관리되지 않은 재정, 기타 등등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불안 증세나 조현병 증상 발현 때문에 행복하우스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병원에 입원하여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세군이 행복하우스의 새로운 관리 기관으로 들어왔을 즈음입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18년 초에 한 입주민의 사망과 향방을 알 수 없는 행복하우스의 앞날, 아버지처럼 돌봐주셨던 전 원장님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정서…… 그때 김동현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켜주시고, 저에게 맞는 일자리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싶어 심한 갈증이 있었을 때에도, 선생님은 “제가 인지행동치료를 배워서 도와드릴까요?”라며 저를 다독여주셨습니다. 때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질문할 때도 최선을 다해 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행복하우스 내 젊은 친구들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맥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곤 공용실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것을 제안하셨고, 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식사하기와 생일자의 생일 축하하기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재정에 무리가 있을까봐 만류하는데도, 선생님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홀릭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르고 달래시며 챙기셨습니다. 사실 당장 방을 빼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인데도 한쪽 눈을 감고 수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은 동물에게도 사

량을 보이셨습니다. 행복하우스 전 원장님이 두고 가신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본인 주머니에서 치료비를 꺼내셨습니다. (행복하우스의 입주민 한 분도 같이 내셨습니다.) 저는 동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주머니 형편을 고려했을 때 동물의 병원비를 낸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그저 눈감고 지나갈 수 있음에도 병원비를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써놓고 보니, 김동현 선생님의 미담찬양을 해 놓은 것 같지만, 가장 인상깊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관계가 물리적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내용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웠었는데, 인류애(?)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불안도, 슬픔도, 고통도…….

2020년 5월 이후로 구세군의 행복 하우스 관리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행복하우스의 불확실한 미래에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얻었던 힘, 김동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돌파해나가렵니다. 부족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임. 행복 하우스의 미화를 담당하시는 김** 선생님께서도 제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걱정해주셨습니다. 우연히 저와 마주치게 되면 간식을 잔뜩 쥐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챙겨주시는 마음에 하루를 살아가 힘을 얻어갑니다.



소통과 관심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단 돈 천원에 따뜻한 한 끼가 해결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일으켜 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에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KB 국민은행 011201-04-188390 | 예금주 :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